

중산층 소득 점유율 4년 만에 상승

3분기 가계동향조사...3분위 가구 소득 점유율 17.72%, 전년보다 올라

5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 축소 영향...“고소득층 시장소득은 더 나뉠 것”

올해 3분기 분배지표가 4년 만에 개선된 가운데 중산층의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에서 중산층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 만에 높아졌다.

다만 이 같은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 상승에는 연금, 사회보장 등 정부 지원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 둔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통계청의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1~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에서 3분위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7.72%로 전년 동분기(17.47%) 대비 0.2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5분위 가구의 표본 수는 같기 때문에 분위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합한 값을 통해 특정 분위의 소득 점유율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3분기 1~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은 2437만9952원이었다.

올해 3분기 소득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9277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2%였다.

3분위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18.1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반등했다.

중상위층인 3~4분위의 소득 점유율도 상승했다. 올해 3분기 3~4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93%로 전년 동분기(41.45%) 대비 0.48%p 올랐다.

3·4분위 소득점유율 역시 지난 2015년 3분기(42.12%)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이 오른 원인은 근로소득 증가와 정부 정책 영향이 꼽힌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중간소득 가구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진 데는 근로소득 증가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4분위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5.8%, 7.7%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근로소득 증가율(3분위 2.1%, 4분위 3.6%)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영향도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4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수혜금 증가율은 각각 32.2%, 76.6%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 상승에는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산층 소득 여건 개선을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0.7%로 나머지 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3~4% 수준)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위 가구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3분위 가구의) 소득 비중이 커졌다”며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도 정부 지출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장 소득에서의 5분위 가구의 소득 상황은 실제로 더 나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봇세프가 왔다” LG전자와 CJ푸드빌이 지난 22일 패밀리레스토랑 ‘빽스’ 등촌점에 ‘LG 클로이 세프봇’을 선보였다. LG전자가 국내외에서 세프봇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빽스 등촌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LG 클로이 세프봇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상생카드’ 출시 8개월 만에 발행액 600억 돌파

‘10% 특별할인’ 인기몰이

광주상생카드가 출시 8개월 만에 발행액 600억원을 돌파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3월 말 출시된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이 지난 21일 기준 600억원을 넘어섰다.

올 하반기 월별 발행실적은 7월 76억원, 8월 93억원, 9월 122억원,

10월 142억원에 이어 11월에는 18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시간이 흐를수록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광주상생카드’는 시가 지역화 폐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 특별할인 효과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카드형 지역화 페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광주 동행복권 제 886회차 당첨결과 (2019년 11월 23일 추첨)

19	23	28	37	42	45	+	2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974,643,786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9	58,820,64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보너스 숫자일치				
3등	2,140	1,621,69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9,76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68,281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역일연명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컨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



“이마트 4900원짜리 와인 대박”

매출 10위로 11단계 상승...전년보다 매출 21.5% ↑

4900원짜리 와인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마트 상품 매출 10위에 와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마트는 올해 하반기 상품 판매량(지난 7월 1일~11월 17일)을 분석한 결과 와인 매출이 21.5% 증가하며 매출 순위 10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21위에서 올해 10위로 순위가 11단계 상승했다.

주류 상품 매출 가운데 와인의 비율은 전체의 24.5%에 달했다. 하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수입 맥주(20.4%)를 처음으로 제쳤다.

순위 매출·상승의 이유는 초저가 와인 ‘도스코파스’ 덕이

다. 도스코파스는 4900원이라는 가격대로, ‘고급 주류’로 인식됐던 와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었다.

특히 지난달 이마트 와인장터의 매출이 지난해 행사보다 30% 증가했는데 ‘도스코파스 발(發) 와인 대중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만원대 이하 가성비 매출도 지난해 와인장터 때보다 4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관계자는 “도스코파스로 와인에 입문한 고객들이 이 1~2단계 높은 품질의 와인을 찾는 것”이라며 “2019년 하반기는 ‘와인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했다.

기아 ‘텔루라이드’ 美 평가업체서 ‘최고의 차’

기아자동차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미국 평가 기관과 유력 매체로부터 올해 최고의 차로 선정되고 있다.

24일 기아차에 따르면 텔루라이드는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 업체 켈리블루북(Kelly Blue Book)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베스트바이어워드(2020 Best Buy Awards)’에서 ‘베스트 뉴 모델’과 ‘3열 미드사이즈 SUV’ 부문 수상 차량으로 선정됐다.

켈리블루북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평가 업체로 올해 300대가 넘는 2020년형 신모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 주행성 등 성능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각종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올해 최고의 모델과 16개 부문별 최고의 차를 선정했다.

마이클 할리 켈리블루북 관계자는 “텔루라이드의 근사한 스타일과 다양한 편의기능, 뛰어난 안전기술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매력적인 가격에 이런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1